

통계청은 「60~64세 연령대 연금통계」 공표계획을 수립하고, 향후 연금통계 공표시 반영하겠습니다.

< 언론 보도내용 >

- 2024.10.14., 한겨레는 「60~64살 정보 쪽 뺀 연금통계, 언제 보완될까?」 라는 기사에서
 - “통계청에서 개발한 ‘연금통계’가 60~64살 개인·가구의 연금 가입 및 수급정보를 담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” 라는 취지로 보도함

< 통계청 입장 >

- 통계청은 초고령시대에 노인빈곤 해소 및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모든 연금을 포괄한 연금통계를 개발(‘23.10.)하였으며,
 - 일반적인 노인 연령기준* 및 11종 개별 연금의 수급연령**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작성대상은 65세 이상 연령으로 작성 중입니다.
 - *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정책 대상을 주로 65세 이상으로 규정함
 - ** (수급자 연령기준) 기초연금(65세이상), 국민연금(‘22년 62세이상, ‘33년부터 65세이상) 등
 - 다만, ‘33년까지 제도적 과도기에 있는 특정 연령대(60~64세)의 경우,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연금수급현황을 연금통계 보도자료 부록으로 제공 중입니다.
- 통계청은 해당 연령대의 상세한 연금수급현황 분석을 위해 「60~64세 연령대 연금통계」 공표계획을 수립하여, 향후 연금통계 공표시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	책임자	과 장	김지은 (042-481-3675)
		담당자	사무관	전용수 (042-481-3643)